

사설

경주와 문화 월드컵

—고속철 경주우회 결정을 환영하며

현 정권의 무모한 개발정책이 문화재보호를 외치는 여론의 압력에 밀려 제동이 걸렸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있어서 우회통과선으로 결정될 것이 확실시 된다.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경주시내 관광을 고집했던 이른바 건설교통부인인 형상강노선이 무산된 것이다. 지극히 평범하고도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더구나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고 우회통과선 우리 것을 세계인에게 보여줘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문화·문화재의 보존이 얼마나 중대하고 절실한 사안인가 깨달을 수 있었다.

민족역사를 말살하는 매국적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경주중심을 관통시켜 놓은 동해남부선도 이전하고 경주문화재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은 새로운 경주 우회노선의 결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중대한 정책을 졸속·밀실행정 차원에서 확정해서는 안된다. '역사 바로세우기'의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한 다음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경주가 살아 숨쉬는 역사박물관임을 정책입안자들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번 정부정책 철회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었다.

정부가 경주도심통과안이 발표되자마자 사부대중이 함께 범불교적인 대책기구를 발족하여 백지화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 특히 재가회의가 중심이 되어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발족된 '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 백지화추진위원회'는 민족문화유산인 성지 '경주'는 꼭 지켜야 한다는 신념 아래 범국민적인 계몽운동을 펼쳐왔다. 우선 서명운동을 통해 15만명이 넘는 불자들이 동참을 얻어냈다. 여러 차례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론적인 뒷받침을 마련했고, 성명서·건의서 등을 통해 잘못된 정부정책의 철회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 각계 각층의 시민운동단체와 연대하여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갔다. 이러한 경주지킴이 운동은 문화재에 관한 정부정책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지지를 받아냈고 문화체육부가 '건천-화천 우회노선'을 제안하는 계기가 되었다.

첫째, 권리위에 잡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옛 격언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된다. 경주의 옛 도시 보존과 문화재보호를 위해 부처님의 정법수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쟁을 벌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불교계의 역량과 저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새삼 인식시켜 주었다. 우리 불자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다면 불교사회운동을 통한 발달의 사회화는 쉽게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외국인들에게 자랑스럽고 훌륭한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자존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함으로써 관광문화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불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위해 온 국민과 더불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태고종은 다시 한번 부처님전에 성공적으로 월드컵을 치러낼 수 있도록 기원하는 영산대법회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 결사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왔고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건교부인의 '백지화'를 주장해 왔다.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문화재의 산실인 경주의 파괴를



△태고종은 5월 29일 서울 한강시민공원 야외공연장에서 1만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2002년 월드컵유치 성공기원 10만 관동 영산대법회를 개최했다.

열린마당 2002년 월드컵과 불교

한반도를 운동 축구열기로 채운 2002년 월드컵유치 경쟁이 성공리에 끝났다. 이번 월드컵 유치는 어느 때보다도 불자들의 염원이 간절했다. 한국 월드컵의 새 장을 화려하게 열어놓은 불자들의 기원은 6년 후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월드컵을 앞두고 불교계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챙겨본다.

선의의 경쟁 한일감정 해소

재홍 (태고종 교무부장)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가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참에 대한 민족감정으로 대립된 두 나라중 어느 한쪽에서 개최되기 보다는 공동개최된 것이 잘된 일이라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문제는 누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대회를 치러내느냐에 있다. 이것 또한 온 국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일본과 겨뤄야 하는 민족감정이라면 선의의 경쟁이 될 것이다.

우리 불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위해 온 국민과 더불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태고종은 다시 한번 부처님전에 성공적으로 월드컵을 치러낼 수 있도록 기원하는 영산대법회를 계획하고 있다.

불교 전통문화 재조명 기회

성광 (회계사 국제선원 부주지)

불교계는 이번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국제포교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한국불교가 세계의 불교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한국불교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뿌리내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일본이나 타불교국의 불교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드컵대회를 유치했다는 기쁨보다는 지금의 한국불교의 모습을 재조명해 볼 때다. 1천 6백여년동안 한국문화의 큰 맥으로 이어온 한국불교가 국제사회에 얼마나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같이 찾아보자.

지금부터 팔만대장경, 천년고찰 등 수많은 불교문화재의 진수를 알리고 해외포교의 신기원을 이룰 수 있는 범종단 차원의 준비작업을 서둘러야 하겠다.

국제포교사 조직화 할때

이완배 (국민체육진흥공단 무형문화유산팀장)

올림픽과 함께 세계야대 스포츠제전인 월드컵은 단지 체육행사에만 머물지 않는다. 경제는 물론 정치·문화 등 우리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불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나의 견해 박경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가 결정됐다. 이제는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한 차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불교계 또한 새로운 전환의 기회로 심분 활용할 때임을 알아 월드컵을 통한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준비해야 한다. 불교를 세계에 알린다는 점에서는 일본과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일제지하에서 왜곡되고 차단된 한국불교의 전통과 사상을 바로잡아, 올바르게 구미

한국불교 바로 알리는 문화잔치로

각국에 알리는 일은 국민의 믿음과 우리는 각인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불교의 교유의 전통과 사상, 그들 통해 일본불교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한국불교의 위상과 우수성을 정립할 때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행사를 넘어 문화대잔치로 승화할 수 있다. 또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절경일 것이다. 때문에 월드컵을 준비하는 불교계의 노력은 더욱 막중하다. 우선 한국불교를 구미각국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외국어 홍보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교학자를 초청, 미래사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불교에 대한 재인식을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한국불교의 전례를 통해 일본불교가 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학문의 일본 역사입이라는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전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불교계는 문화잔치로써 여법하게 월드컵을 치러내기 위해 불자 개개인의 모두가 '살아있는 정신'으로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준비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훌륭한 불자문화인이 되는 것도 월드컵을 앞둔 불교도들의 몫이라 하겠다.

인터넷 포교 자료구축을

박수호 (천리안불교동호회 시삽)

올림픽이나 월드컵같은 세계대회는 이제 개최국의 모든 것, 특히 문화적 자산을 드러내는 복합적인 이벤트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자산은 불교의 우수성이라고 믿는다. 나는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가장 효과적으로, 손쉽게 알리고, 그리고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매체는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6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재로 지정한 석굴암과 팔만대장경의 영상자료와 그에 따른 해설, 불교 사이트를 통한 선불교의 재인식 체계 제공,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의 홍보 등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겠다.

자원봉사도 불자가 앞장

김흥국 (대한불자기수회 회장)

2002년 월드컵 유치 날씨가 다가오자 초조해지면서 종교적 힘이 필요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2002배를 하게 되었다.

이처럼 월드컵유치에는 개인뿐 아니라 종단차원으로 불교계가 앞장섰다.

6년 안에 있는 월드컵 성공개최에도 불교도가 앞장서야 하겠다.

축구장을 많이 찾아주는 것은 물론 절대적인 인원을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자, 한국을 찾는 관광객 안내에 이르기까지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다. 특히 월드컵 유치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이면서 선

현대만평 2002년 월드컵. A cartoon illustration showing a soccer ball and people playing soccer. Text: 통일돼서 함께...

목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를 각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 현상의 그림자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의 상태. 우리 시대에 이르러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한 나머지 인간의 심성과 생활환경이 말할 수 없이 황폐된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 저지른 죄이다. 흙과 물과 나무와 공기와 햇빛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들이 그와 같은 고마운 자연을 끊임없이 더럽힌다. 이제 새삼스럽게 삶의 질을 문제삼을 만큼, 그동안 우리들이 추구했던 그 풍요가 한낱 허구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자연에서 이탈한 인간은 그만큼 부자연스럽다. 커다란 생명체인 이 자연에 대한 존경심을 잃으면 자연환경의 지배를 추궁했다. 그 결과 우리의 그림자. 과 과잉소비와 포식사회를 이루어 오늘날과 같은 온갖 질병과 환경위기를 불러들인 것이다. 삶의 원천을 망각한 채 도시화와 산업화로 즐락하면서 날로 인간의 실 자리가 사라져가고 있다. 간을 짧보게 된다. 우리가 어머니 내치에 소속되려면 먼저 그 대지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우리 모두 인간화가 돌아가 그 품에 안길 대지를 살아가 있는 생명체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새싹들 자랄 위한 부처님 말씀. 말로써 옳고 그름 가리려하면 너희들은 서로 싸우지 말라. 말일 말로써 옳고 그름을 가리려하면 한 평생을 싸워도 끝날 날이 없으리라. 오직 참는 것만이 진실로 싸움임을 끝낼 수 있나니. (중야장경) 관음암 주지 지인 TEL. (0394) 34-8600

청정운동 실천전국대회.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청정운동 선언문. 청정운동 '96실천지침. 대회일정. 청정운동 추진협의회 :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대한불교진흥원 내 / 전화 : 02-719-2606 / 팩스 : 02-719-5052